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4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783	16.5	49,651	18.8	4,132
일본 부분	2,421	-2.6	4,862	10.8	-2,441
일본 비중	4.5		9.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2020년 3월	2021년 3월	증감률
수출(백만¥, %)	6,357,070	7,378,264	16.1
수입(백만¥, %)	6,349,576	6,716,101	5.8
수지(백만¥, %)	7,494	662,163	8735.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8,687	7,410	27,873	11,145	13,031	1,293
한국 부분(억¥)	119	50	75	51	118	17
한국 비중(%)	0.6	0.7	0.3	0.5	0.9	1.3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3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3월	2021년3월	증감률		2019년3월	2021년3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535,641	74,604	-95.1	전체	2,760,136	12,300	-99.6
방한 일본인	375,119	949	-99.7	방일 한국인	585,586	2,000	-99.7
일본인 비중	24.4	1.3		한국인 비중	21.2	16.3	

주: COVID-19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고 있기에 증감률은 전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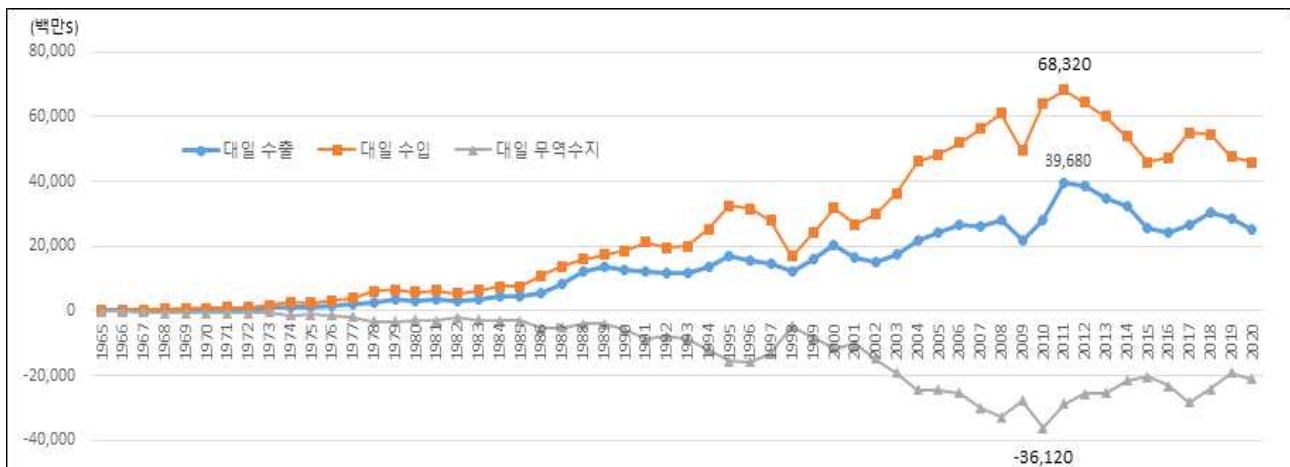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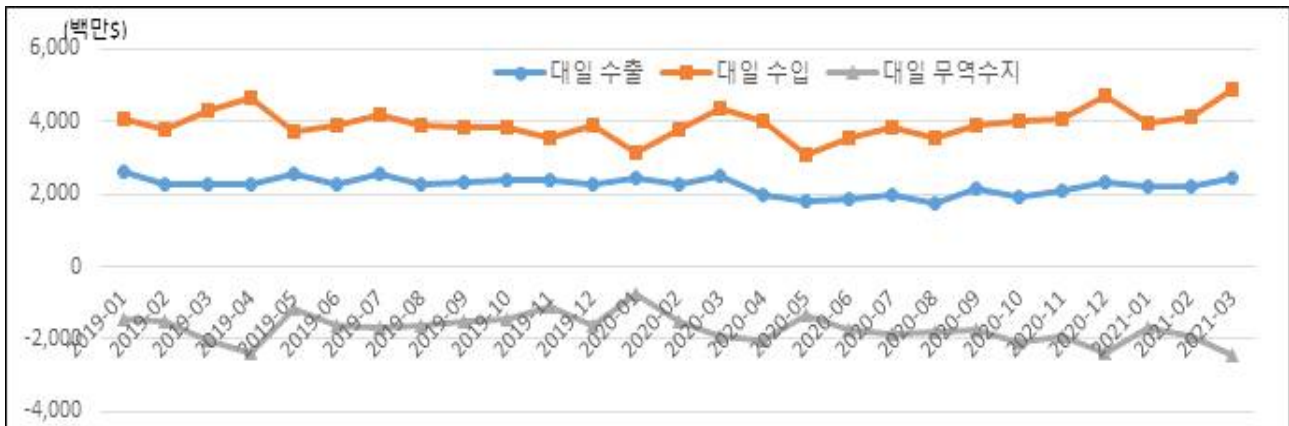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3월에는 수출, 수입, 무역적자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 및 2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다가 3월에는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 2월 및 3월에는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20년 5월 감소 후 6월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월에는 전월대비 감소, 2월 및 3월에는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2.6%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10.8%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783	16.5	49,651	18.8	4,132
일본 부분	2,421	-2.6	4,862	10.8	-2,441
일본 비중	4.5		9.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3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16.5%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2.6% 감소하여 24.2억 달러가 됨
- 2021년 3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8.8%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10.8% 증가하여 48.6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41.3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4.4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9.8%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3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5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8개 품목이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3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3월(백만\$, %)			2021년 3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485	9.9	-1,905	2,421	-2.6	-2,441
1	철강제품	284	-14.5	-233	324	14.1	-150
2	정밀화학제품	215	18.6	-162	262	21.9	-146
3	광물성연료	252	1.2	216	245	-3.0	204
4	산업용전자제품	205	59.6	-84	176	-14.4	-85
5	전자부품	147	13.5	-516	168	13.9	-498
6	금속광물	95	5.3	37	158	66.3	87
7	석유화학제품	99	-3.8	-172	125	27.0	-199
8	농산물	102	-0.6	84	101	-1.3	78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6	0.2	-38	75	-12.7	-70
10	플라스틱제품	72	10.9	-114	69	-5.2	-15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3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3월(백만\$, %)			2021년 3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390	1.7	-1,905	4,862	10.8	-2,441
1	전자부품	663	23.2	-516	666	0.5	-498
2	정밀기계	495	34.4	-452	644	30.1	-594
3	철강제품	516	-3.6	-233	474	-8.2	-150
4	정밀화학제품	377	-3.0	-162	408	8.4	-146
5	석유화학제품	270	-24.9	-172	324	19.7	-199
6	기초산업기계	209	-10.5	-136	261	25.3	-199
7	산업용전자제품	289	10.3	-84	261	-9.8	-85
8	수송기계	199	-14.6	77	243	22.1	-175
9	플라스틱제품	186	2.1	-114	225	20.9	-156
10	산업기계	209	-15.7	-137	215	2.7	-149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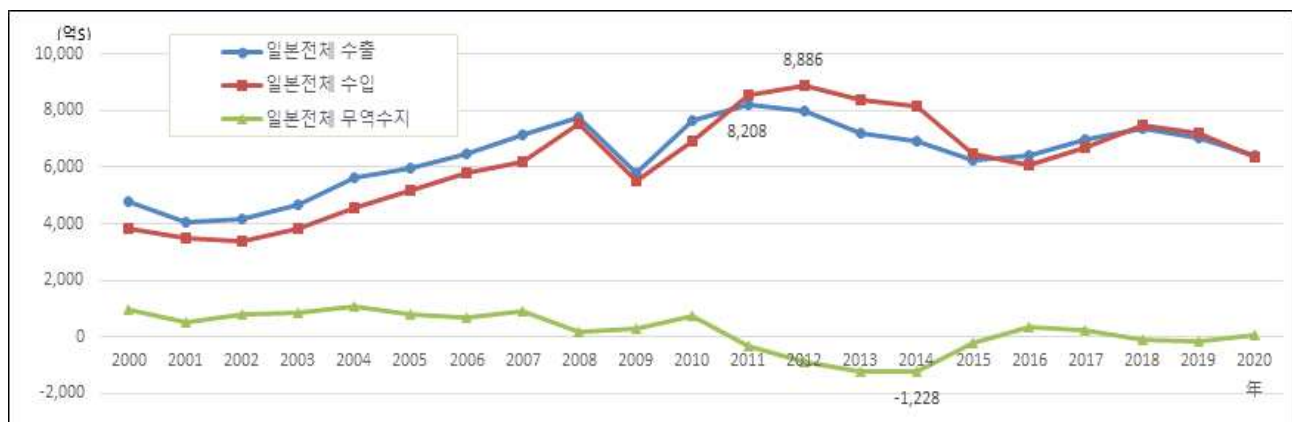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금속광물(66.3%), 석유화학제품(27.0%), 정밀화학제품(21.9%) 등 5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제품(-14.4%), 기계요소공구및금형(-12.7%) 등 5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정밀기계(30.1%), 기초산업기계(25.3%), 플라스틱제품(20.9%) 등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제품(-9.8%), 철강제품(-8.2%)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무역흑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상황

	2020년 3월	2021년 3월	증감률
수출(백만¥, %)	6,357,070	7,378,264	16.1
수입(백만¥, %)	6,349,576	6,716,101	5.8
수지(백만¥, %)	7,494	662,163	8735.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하여 7조 3,783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의약품, 철광석, 전산기종류(주변기기 포함) 등의 증가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등의 감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하여 6조 7,161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흑자가 8735.8% 증가하여 6,622억 엔의 흑자가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7.3%, 수입의 49.6%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8,906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3.5%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對中) 무역흑자는 574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3%, 수입의 0.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096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6.7%, 수입의 3.8%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330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6.7%, 수입의 4.4%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韓(對韓) 무역흑자는 2,011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6.8%, 수입의 11.8%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4,48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8%, 수입의 3.3%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1.0%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378,264	100.0	16.1	6,716,101	100.0	5.8	662,163	8735.8
아시아	4,224,389	57.3	22.4	3,333,769	49.6	9.9	890,620	113.2
중국	1,634,396	22.2	37.2	1,576,950	23.5	10.0	57,446	-
홍콩	319,854	4.3	15.0	10,227	0.2	45.9	309,627	14.2
대만	490,873	6.7	13.6	257,839	3.8	8.7	233,034	19.6
대한민국	495,194	6.7	11.2	294,052	4.4	11.0	201,142	11.5
싱가포르	194,016	2.6	20.9	79,128	1.2	0.2	114,888	40.9
태국	305,341	4.1	19.1	266,495	4.0	15.4	38,846	52.8
말레이시아	162,382	2.2	25.0	194,068	2.9	9.6	-31,686	-32.9
인도네시아	124,786	1.7	-5.2	188,202	2.8	19.9	-63,416	150.0
필리핀	106,085	1.4	25.8	109,786	1.6	15.8	-3,701	-64.8
베트남	179,638	2.4	4.4	219,648	3.3	-2.3	-40,010	-24.2
인도	143,823	1.9	33.0	62,776	0.9	27.7	81,047	37.5
대양주	203,922	2.8	21.9	416,280	6.2	-8.7	-212,358	-26.4
호주	160,233	2.2	28.7	370,199	5.5	-8.5	-209,966	-25.0
뉴질랜드	24,591	0.3	19.2	21,890	0.3	-8.3	2,701	-
북미	1,329,722	18.0	5.8	894,791	13.3	5.7	434,931	5.9
미국	1,239,302	16.8	4.8	790,440	11.8	6.5	448,862	2.0
캐나다	90,419	1.2	20.6	103,952	1.5	0.4	-13,533	-52.7
중남미	288,398	3.9	14.3	277,138	4.1	12.2	11,260	107.4
서유럽	817,909	11.1	8.5	934,831	13.9	19.4	-116,922	299.9
독일	204,282	2.8	11.3	221,192	3.3	11.3	-16,910	10.8
영국	89,173	1.2	-22.1	67,335	1.0	4.9	21,838	-56.5
프랑스	70,063	0.9	11.6	97,699	1.5	17.9	-27,636	37.5
네덜란드	133,061	1.8	16.2	42,017	0.6	87.3	91,044	-1.1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72,305	2.3	16.6	159,844	2.4	-15.6	12,461	-
중동	235,514	3.2	0.6	616,730	9.2	-11.8	-381,216	-18.1
아프리카	106,104	1.4	14.7	82,716	1.2	-12.4	23388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 품목이 감소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수출 경우는 원료품(48.9%), 식료품(40.0%), 기타(23.4%), 일반기계(18.7%) 등 8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17.9%) 1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일반기계(3.7%), 기타(2.8%), 수송용기기(2.7%), 전기기기(2.3%), 화학제품(2.2%) 등의 순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원료품(30.0%), 화학제품(15.8%), 일반기계(15.5%) 등 7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광물성연료(-11.6%)와 수송용기기(-10.4%)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원료품(1.8%), 화학제품(1.7%), 전기기기(1.7%), 일반기계(1.5%) 등의 순으로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3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378,264	100.0	16.1	16.1	6,716,101	100.0	5.8	5.8
1 식료품	87,011	1.2	40.0	0.4	590,428	8.8	2.8	0.2
2 원료품	141,016	1.9	48.9	0.7	504,708	7.5	30.0	1.8
3 광물성연료	83,079	1.1	-17.9	-0.3	1,198,906	17.9	-11.6	-2.5
4 화학제품	888,556	12.0	18.5	2.2	802,684	12.0	15.8	1.7
5 원료별제품	848,261	11.5	13.1	1.5	629,798	9.4	10.1	0.9
6 일반기계	1,500,808	20.3	18.7	3.7	685,740	10.2	15.5	1.5
7 전기기기	1,277,973	17.3	12.7	2.3	1,122,296	16.7	10.3	1.7
8 수송용기기	1,597,744	21.7	11.9	2.7	255,129	3.8	-10.4	-0.5
9 기타	953,817	12.9	23.4	2.8	926,413	13.8	6.5	0.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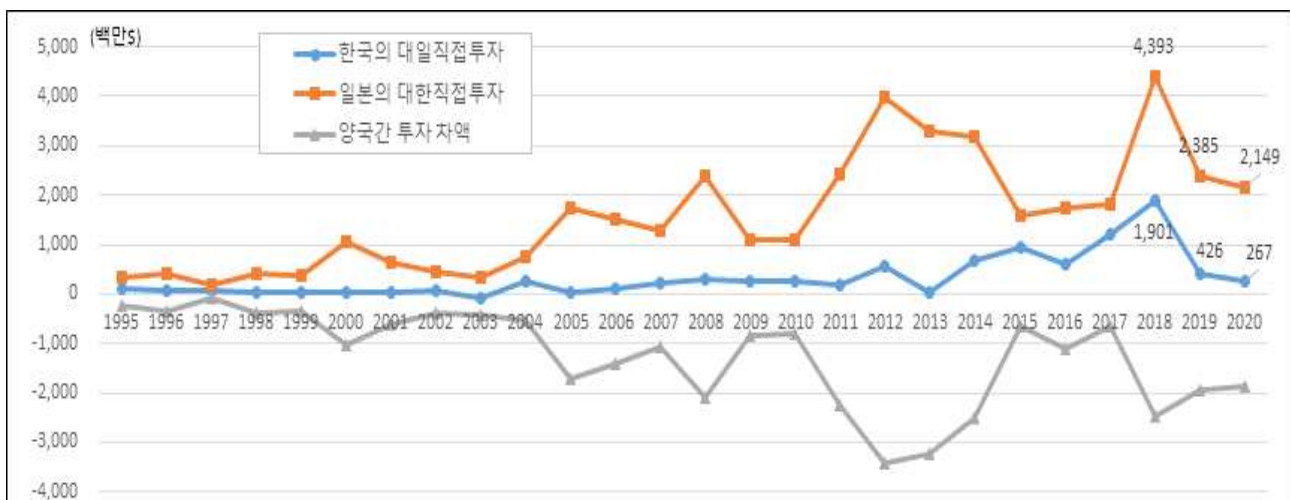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18,687	7,410	27,873	11,145	13,031	1,293
한국 부분(억¥)	119	50	75	51	118	17
한국 비중(%)	0.6	0.7	0.3	0.5	0.9	1.3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월 27,873억 엔(실행 62,963; 회수 35,090)에서 2월 13,031억 엔(실행 37,607; 회수 24,575)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월 75억 엔(실행 221; 회수 146)에서 2월 118억 엔(실행 159; 회수 41)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서 0.9%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월 11,145억 엔(실행 34,460; 회수 23,316)에서 2월 1,293억 엔(실행 26,828; 회수 25,535)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월 51억 엔(실행 55; 회수 4)에서 2월 17억 엔(실행 29; 회수 11)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1.3%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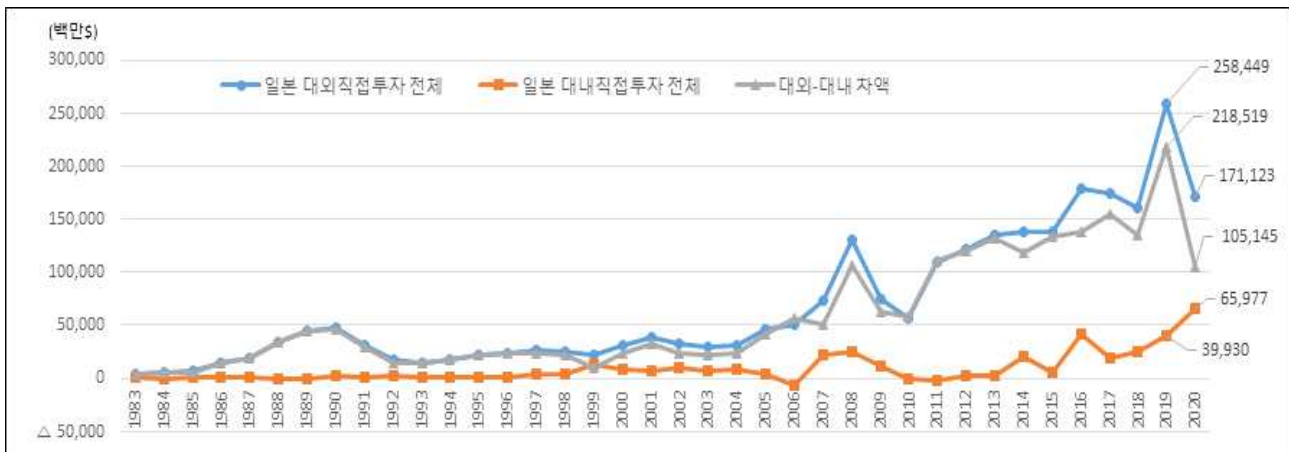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2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13,031억 엔, 대내직접투자 1,293억 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3,031억 엔(실행 37,607; 회수 24,575)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아시아(32.6%), 북미(29.8%), 중남미(23.1%), 유럽(13.3%) 등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3,753억 엔), 벨기에(2,167억 엔), 케이만제도(2,067억 엔), 싱가포르(1,671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293억 엔(실행 26,828; 회수 25,535)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중남미(173.6%), 북미(140.2%), 아시아(46.8%)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유럽 경우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케이만제도(2,225억 엔), 미국(1,807억 엔), 싱가포르(552억 엔), 스위스(519억 엔)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고, 영국 경우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순투자가 -4,627억 엔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2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13,031	100.0	1,293	100.0
아시아	4,253	32.6	605	46.8
중국	711	5.5	168	13.0
홍콩	763	5.9	99	7.7
대만	98	0.8	-196	-15.2
한국	118	0.9	17	1.3
싱가포르	1,671	12.8	552	42.7
태국	319	2.4	-22	-1.7
인도네시아	291	2.2	0	0.0
말레이시아	11	0.1	-19	-1.5
필리핀	117	0.9	-1	-0.1
베트남	139	1.1	1	-
인도	105	0.8	4	0.3
북미	3,884	29.8	1,813	140.2
미국	3,753	28.8	1,807	139.8
캐나다	131	1.0	6	0.5
중남미	3,004	23.1	2,245	173.6
케이만제도	2,067	15.9	2,225	172.1
대양주	163	1.3	17	1.3
호주	173	1.3	22	1.7
뉴질랜드	-17	-0.1	1	0.1
유럽	1,738	13.3	-3,385	-261.8
독일	-225	-1.7	14	1.1
영국	396	3.0	-4,627	-357.8
프랑스	-10	-0.1	42	3.2
네덜란드	117	0.9	287	22.2
이탈리아	-3	0.0	63	4.9
벨기에	2,167	16.6	-6	-0.5
룩셈부르크	530	4.1	46	3.6
스위스	411	3.2	519	40.1
중동	-22	-0.2	-2	-0.2
아프리카	12	0.1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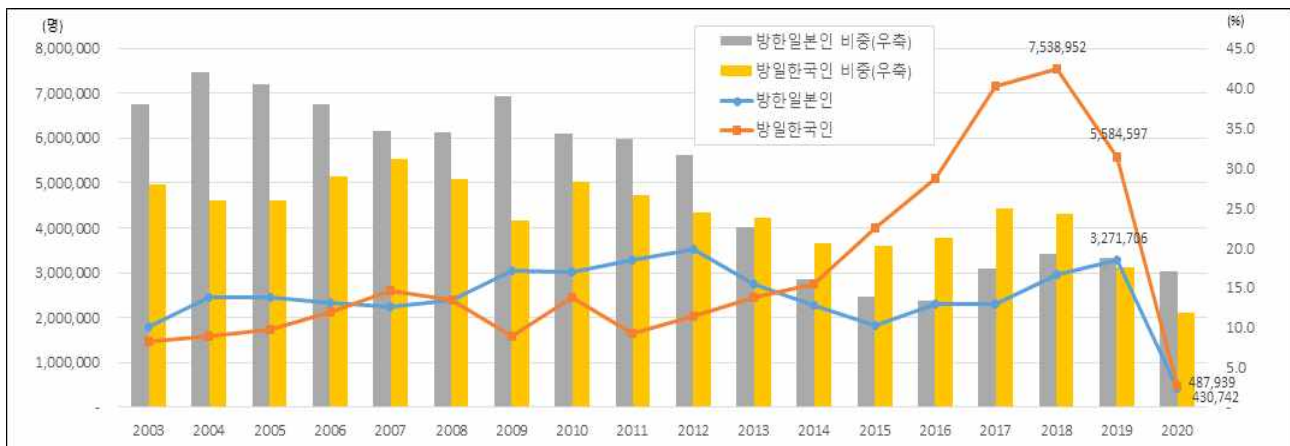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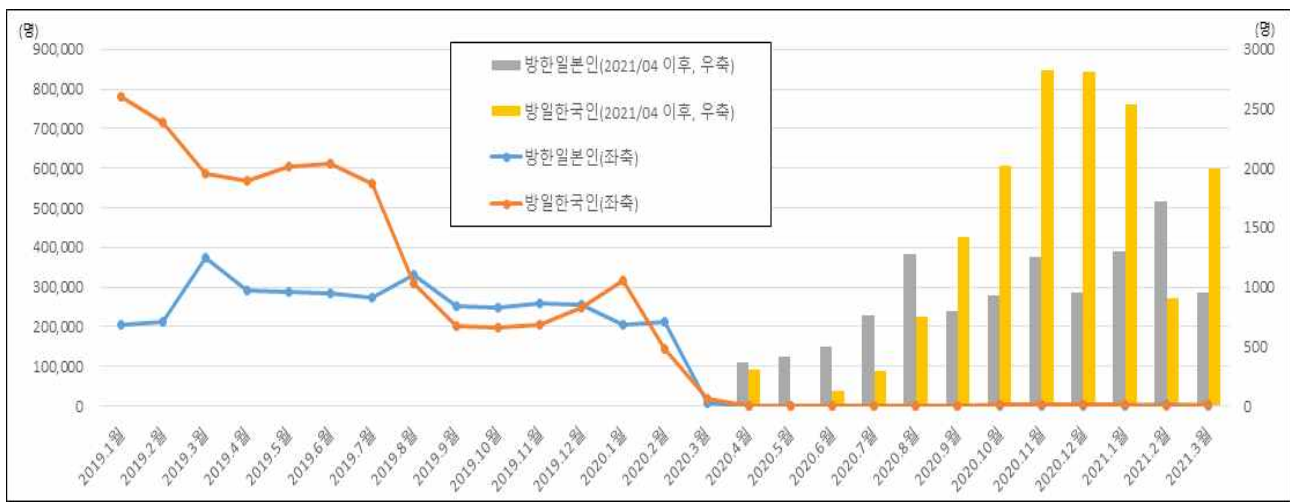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남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감소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정체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00명, 3월 2,0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3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전년동월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3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3월	2021년3월	증감률		2019년3월	2021년3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535,641	74,604	-95.1	전체	2,760,136	12,300	-99.6
방한 일본인	375,119	949	-99.7	방일 한국인	585,586	2,000	-99.7
일본인 비중	24.4	1.3		한국인 비중	21.2	16.3	

주: COVID-19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고 있기에 증감률은 전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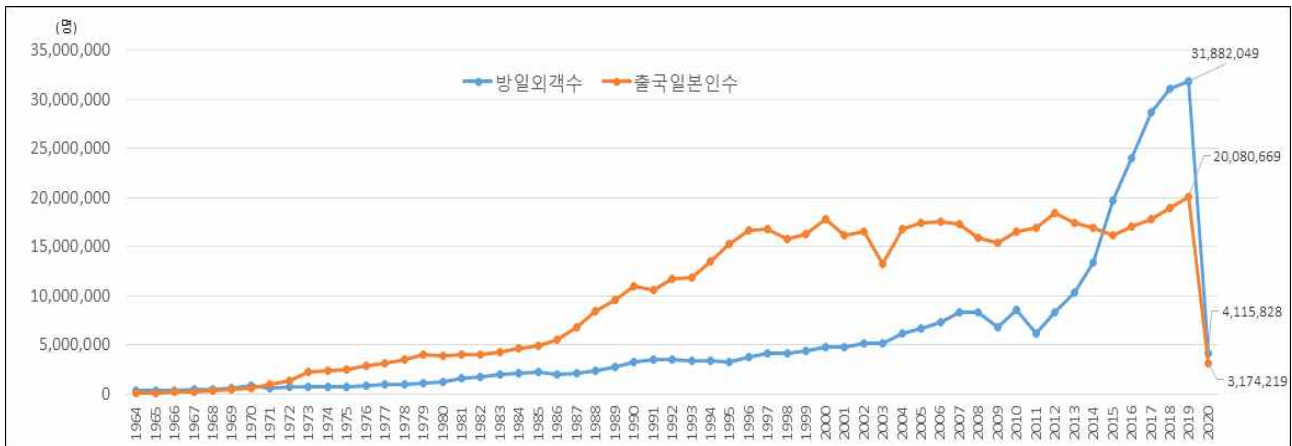
- 2021년 3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74,604명으로 전전년동월대비 95.1%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949명으로 전전년동월대비 99.7%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3월 24.4%에서 2021년 3월 1.3%로 감소하였음
- 2021년 3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2,300명으로 전전년동월대비 99.6%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전년동월대비 99.7%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3월 21.2%에서 2021년 3월 16.3%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3월 상황

- <표10>은 2021년 3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방일외객수가 전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21년 3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2,300명으로 전전년동월대비 99.6%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9.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4,000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9.4%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9.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6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9.9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700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6.1%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전년동월대비 99.7% 감소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3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3월		2021년 3월		전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2,760,136	100.0	12,300	100.0	-99.6
한국	585,586	21.2	2,000	16.3	-99.7
중국	691,279	25.0	4,000	32.5	-99.4
대만	402,433	14.6	600	4.9	-99.9
홍콩	171,430	6.2	60	0.5	-99.97
태국	147,443	5.3	100	0.8	-99.9
싱가포르	43,687	1.6	60	0.5	-99.9
말레이시아	50,615	1.8	100	0.8	-99.8
인도네시아	39,609	1.4	300	2.4	-99.2
필리핀	48,277	1.7	200	1.6	-99.6
베트남	47,881	1.7	200	1.6	-99.6
인도	17,752	0.6	700	5.7	-96.1
호주	44,175	1.6	50	0.4	-99.9
미국	176,564	6.4	600	4.9	-99.7
캐나다	37,959	1.4	50	0.4	-99.9
멕시코	5,740	0.2	20	0.2	-99.7
영국	38,610	1.4	200	1.6	-99.5
프랑스	29,408	1.1	90	0.7	-99.7
독일	28,659	1.0	80	0.7	-99.7
이탈리아	14,956	0.5	50	0.4	-99.7
러시아	11,701	0.4	90	0.7	-99.2
스페인	8,916	0.3	80	0.7	-99.1
중동지역	11,726	0.4	70	0.6	-99.4
기타	105,730	3.8	2,600	21.1	-97.5

주: COVID-19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고 있기에 증감률은 전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4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4월 22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1년 1-3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4.8	-5.8	-1.4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5	-2.0	-2.9	-1.9		-2.8	-1.2	-0.3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18.7	-0.4		-5.4	-0.4	6.3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1.3 -10.1	80.5 -7.0		78.4 -9.0	80.1 -3.1	80.8 -3.7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7.0	8.5		10.6	29.4	-6.0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14.9 -11.1	-1.8 -3.2	P 4.6 P 5.8	-0.1 -2.0	5.3 -4.1	-4.3 P 22.0	P 12.6 P 3.9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3.0	-3.5		-2.9	-5.3	-2.0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8.4	-0.7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383 1.7	7,773 -7.2	2,021 -7.3	1,751 -20.8	1,554 -28.1	558 -20.7	474 -38.6	466 -31.4	634 -14.3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8	3.0	3.0		3.0	2.9	2.9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8 0.2	-2.1 -0.8	P -0.4	-2.0 -1.2	-1.6 -0.6	-0.6 -0.4	P 1.0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2,906 106.20	25,194 104.49	29,001 106.09	26,772 103.82	28,189 103.70	29,458 105.36	29,315 108.65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2월, 3월, 4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2월에 전월대비 1.3% 증가함
 - ‘가계조사’ (2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2.4%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2월)에서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대비 3.1% 증가함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또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출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신차판매대수는 최근 약세임
 - 외식은 감소가 멈추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일부 업태에서는 낮은 수준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10-12월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 감소, 비제조업이 0.7%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2021년도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회복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2월 전월대비 0.8% 증가하여 연율 80.8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음
- 2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0.9% 감소, 3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0.0% 증가, 2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4.1%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견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완만하게 되고 있으며,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수출은 최근 증가세가 완만하게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최근 약세이며, EU 쪽 수출은 최근 감소가 멈추고 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2월의 방일외객수는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하였음
 -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2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가 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2월에 전월대비 1.3%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2월에 전월대비 0.7%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3월은 전월대비 1.9% 감소, 4월은 전월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및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에서는 약세가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도산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법인기업통계계보’ (10-12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12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0.7% 감소, 전기 대비 15.5% 증가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3.9% 증가, 하반기에 전년대비 1.0%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대비 10.9% 증가, 하반기에 전년대비 6.9%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6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월 446건, 3월 634건임으로 3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2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2.9%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완전실업자 수는 보합 상태이며,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보합권내에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제조업도 부족초과 쪽으로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3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8%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3월에는 전월대비 1.5% 포인트 상승하여 71.3%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대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엔고로 추이함
 - 주가는 28,400엔대에서 30,000엔대까지 상승한 후 29,100엔대까지 하락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8엔대에서 110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8엔대까지 엔고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4%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5.9%(3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20.8%(3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9.5%(3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4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4월 22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개혁 및 그린 사회 실현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대해서는 4월 1일, 9일 및 16일에 신형인플루엔자 등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0도부현을 대상으로 하는 만연방지등중점조치의 실시를 결의하였음
 - 계속해서 감염 재확대 억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대책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구체화 하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계속 감염상황 및 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예비비도 활용하여 기동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경제 및 해외관련 정책 동향

- COVID-19 영향으로 도산한 기업 수가 누계 1,400사
 -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COVID-19 영향으로 도산한 기업이 누계 1,400사가 되었음
 - 업종별로는 음식점, 건설·공사업, 호텔·여관, 어패럴 소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일본은행이 4월 1일 발표한 3월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 의하면 업황판단지수에서 대기업·제조업은 COVID-19 감염 확대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숙박·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서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 긴급사태선언이 처음 발령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과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관서지방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적개선이 진행되었으나, 중소기업은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음
 -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 일본 카지야마 경제 산업대신과 미국 러만도 상무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세계적인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음
 - 일본, 호주, 인도의 경제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하여 각료 회합을 열었음
 - 공동 성명에서 물류 정보의 디지털화 등에 의한 공급망 강화 성공 사례 공유와 기업이 생산 거점이나 조달처의 다양화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시켰음
- (출처: NHK, 2021.04.09., 2021.04.30.; 닛케이신문, 2021.04.27.; 마이니치신문, 2021.04.02.; 산케이신문, 2021.04.07.)

□ 일본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

○ 태양광 발전 증가 및 에너지 절약량 목표 상향 조정

-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행 정책을 유지했을 경우 2030년도 태양광 발전 도입량이 현재의 6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약 3배인 1,300만kW, 해상 풍력은 약 100만 kW로 전망함
- 환경 어세스먼트의 효율화나 황폐한 농지를 전용하여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 8일에 2030년도의 에너지 절약량 목표를 원유환산으로 기존의 5,036만 kL에서 5,800만 kL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 자동차 등 운수부문과 화학 업계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 강화 등으로 절감함
- 일본 정부는 4월 20일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골자를 결정했음
- 향후 5년간 전국의 최소 100곳의 선행지역에서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한다고 함
- 이 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거나 삭감량에 따른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등 국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과 초기비용 없이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전국에 확대시키는 내용 등이 있음

○ 자동차 후방카메라 장비 의무화 및 데이터센터 지방 입지 우대조치 검토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후방카메라나 센서 장비를 자동차 업체에 의무화한다고 밝혔으며,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르면 2022년 5월 이후 판매할 신차에 적용함
- 4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연구회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음
-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등에 대한 접속 건수는 하루 6,506건으로 2019년의 1.6배 증가하였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쿄 근교와 오사카 근교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입지를 촉진하는 우대 정책을 검토함
- 데이터센터의 지방 입지를 통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방에서의 고속 통신을 안정시키고자 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4.01.; NHK, 2021.04.03., 2021.04.20.; 닛케이신문, 2021.04.07., 2021.04.08., 2021.04.27.)

□ 한일 관계

- 한일간 국장급 협의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지하는 국제법률가 성명
 -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월 1일 일본 외무성내에서 4시간 동안 협의했음
 - 징용공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의 대응에 대하여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정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해 한일 중심의 410명의 국제법률가가 판결에 대한지지 성명을 냈음
 - 성명서에서는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재판인 경우에,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시해 예외적으로 주권 면제의 적용을 부정한다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발전하고 있는 관습 국제법에 합치하는 훌륭한 판결이라고 하였음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1.04.02.; 아사히신문, 2021.04.12.)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동향

- 일본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및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지
 - 주택업체인 에코워크스는 2020년 5월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계약으로 전환하였음
 - 인쇄와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 SouGo도 2020년 3월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했는데, 전력 소비 재검토를 통해 낡은 에어컨을 바꾸어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기료는 변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함
 - 한편, 재생에너지 100% 달성의 과제는 비용인데, 소비전력이 커서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조달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소비전력이 적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도 비용이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 거래처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에 탈탄소를 요구하는 움직임 등도 나타나고 있음
 - 간사이전력 자회사 간전에너지솔루션(関電エネルギーソリューション)은 4월 27일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자회사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던 아키타현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국내 미착공 석탄 화력 신설 계획은 제로가 되었음

○ 일본 기업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탈탄소화

- 닛산자동차는 폐차된 전기자동차 등에서 전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사업을 강화함
- 전용 거점에서 회수한 전지 중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은 전기자동차 교환용 전지, 이외는 공장용 축전지나 비상용 전지 등으로 판매함
-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낡은 전지에서 코발트를 꺼내 다시 전지 재료로 사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하고 있음
- JR도카이는 은퇴한 신칸센 차량의 알루미늄을 다시 신칸센에 쓸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고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출처: 아사히신문, 2021.04.02., 2021.04.28.; NHK, 2021.04.11., 2021.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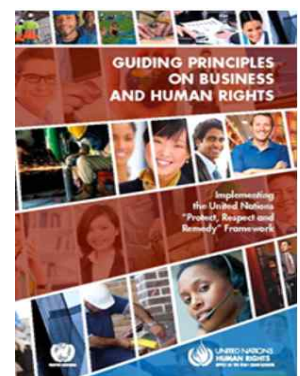
□ Supply Chain 개선 관련 동향

○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 재검토 착수

- 일본 국내 주요 기업체의 사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본 국내에 공장을 가지는 기업의 80%가 공급망의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특정국에 대한 집중을 재검토해 분산화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연하게 조달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였음
- 각 기업들의 공급망은 COVID-19로 인한 휴업조치, 도시봉쇄 등과 반도체 공급 부족,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인한 수지 부품의 생산정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곤란을 겪었음
- 또한, 경제안보에 따른 공급망 개편은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인권실사에 따른 공급망 재검토

- 한편, 일본 기업은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망 재검토를 서두르고 있는데, 인권실사는 공급망도 대상이 되므로 리스크에 관한 정보 개시나 예방책, 경감책의 도입이 필요함
- 공급망 등에 인권침해가 있으면 국제적인 평판 하락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불매 운동 등의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음
- 아사히그룹홀딩스는 인권침해 리스크가 높은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해외 거래처 현지 조사를 차례로 실시하며, 이토추 상사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등의 거래처 농원이나 공장에서의 아동노동이나 불법 저임금 노동이 없는지 설문조사를 했음



출처: <https://www.ohchr.org/>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기업이 자신이 관여하는 잠재적, 실제적인 인권 악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자신의 활동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리적 맥락, 부문 및 비즈니스 관계별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출처: 닛케이신문, 2021.04.01., 2021.04.26.; 산케이신문, 2021.04.19.; <https://www.ohchr.org/>)

□ 일본 제철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동향

○ 제철회사 일부 고로 폐쇄

- 일본 내 시장 축소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탈탄소화 등으로 일본 철강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일본제철은 동일본제철소 가시마지구의 일부 고로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음
- 이에 따라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전체의 약 20%인 1만 명 이상을 삭감할 계획으로 본사 사원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을 모집하지 않고 다른 거점 배치전환 등으로 대응할 방침임
- 철강 대기업인 JFE스틸도 2023년 9월에 동일본제철소 게이힌지구의 고로를 폐쇄할 방침임

○ 반도체회사의 생산 재개 및 자동차회사의 전동화 대응

-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화재로 정지하고 있던 주력 공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을 약 1개월 만에 재개하였으나, 일부 제조 장치의 정비 등으로 출하량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한편,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주문 증가에 대응하여 설비 투자를 새롭게 하고 있음
- 토요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를 현재 6차종에서 15차종으로 늘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전방위 전략으로 전동화에 임할 방침임
-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과 환경대응 등 소프트웨어 개발경쟁이 치열함
- 토요타자동차는 신규 채용 인원 중 절반 가까이를 IT계열로 채용할 방침임

(출처: 산케이신문, 2021.04.15., 2021.04.26. NHK, 2021.04.19.)